

J.J.

MONTHLY
LIFE DESIGN
MAGAZINE

MEMBERSHIP
MAGAZINE OF
GRAND HYATT SEOUL

MARCH
2015

+

NO.
116



DEAR FRIENDS, HOPE ALL IS WELL —
WE DON'T WORK, WE PLAY

— AN AUTHENTIC 3D STORY —

IT MEANS TO SCARE YOU —

— FACTORY MADE
만들어내고 만들어가는, 팩토리의 뒷모습

NOTHING BUT YO

— 따뜻한 기계

예의를 잃지 맙시다
ONE OF KIND —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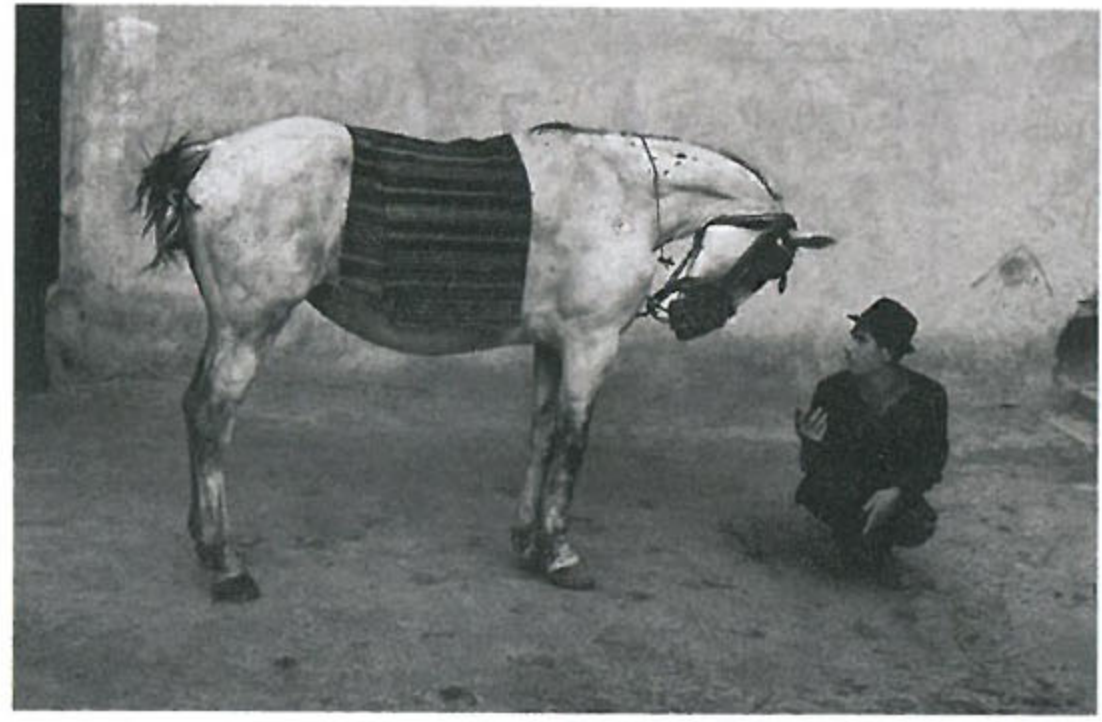
Simon Morley <What are Soviets>, 2014. acrylic on canvas. 162 x 194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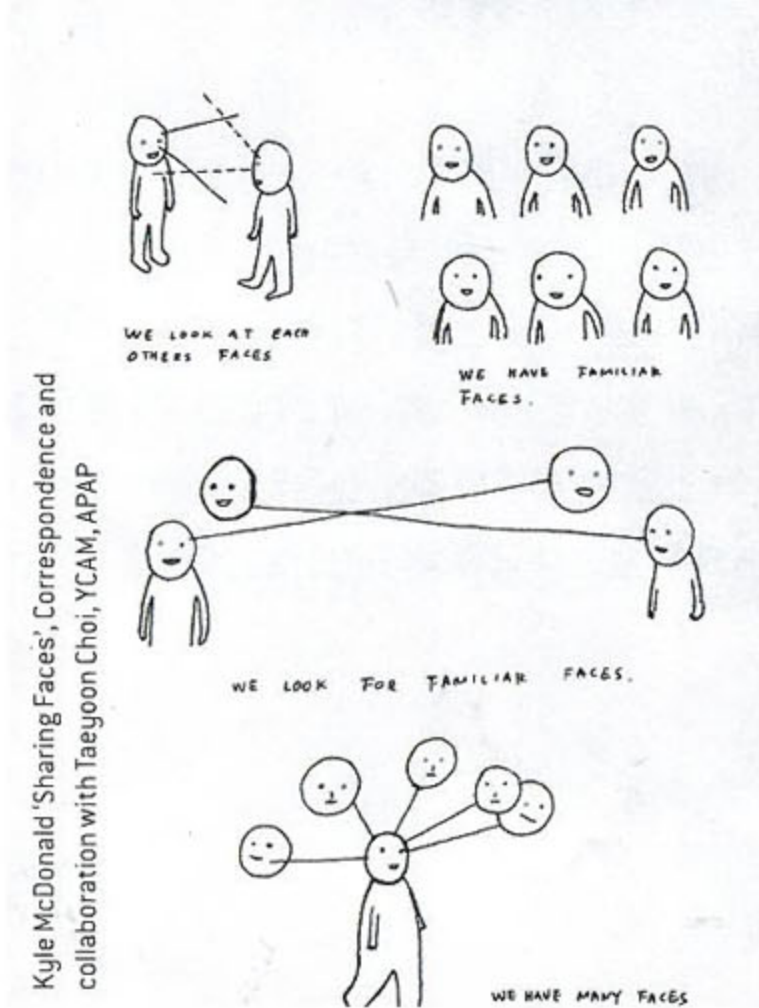
황하영 <사랑의 크기>, 2014. C-print. 170 x 123 cm.



다나카 고키, <피아니스트 다섯이 한 번에 연주하는 피아노(첫 번째 시도)>, 2012 협업 작업, 기록 영상, 57분.



Josef Koudeika <Romania, negative 1968>, print 1980s. Gelatin silver print. 35.5 x 54 cm. / Image courtesy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romised gift of Robin and Sandy Stuart. © Josef Koudeika/Magnum Photos



Kyle McDonald 'Sharing Faces', Correspondence and collaboration with Taeyoon Choi, YCAM, APAP



김소라, <예측불가능한 총착점을 향한 한 점의 총잡을 수 없는 곡류운동>, 2015. 종이, 액자. Courtesy of the

FOCUS

EDITOR CHANG NAMMI COOPERATION ART SONJE CENTER, FACTORY, GALLERY BATON, GETTY MUSEUM, LIG ART SPACE

DEAR FRIENDS, HOPE ALL IS WELL

초대할까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보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야기하고, 찌르는' 역할을 하는 이야기들이다. 한국 안팎에서 겹쳐지는 시기에 전시를 여는, 각기 다른 크고 작은 다섯 가지 이야기인데, 은밀하게도 말이 통한다.

어떤 '작은' 이야기는 그 사회 현재를 반영하는 '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한 개인과 가족의 기억인 가족사진이 한 사회와 문화의 총체적인 기억을 포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듯. <Family Album: Floating Identity>의 맥락처럼, 사적 영역으로부터 공적 영역에 이르는 작업을 하는 이들은 국적, 문화적 배경 혹은 정치적 기원, 역사적 관점이 다르다는 '차이'를 갖는다. 즉, 이 페이지는 불일치의 한 장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맺기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며 모호한 가운데서 천천히 이미지와 텍스트를 읽어보는 시각적인 경험으로 초대하는 공간을 열어보는 것이다. 정치, 심리, 문학, 철학, 종교 서적 등에서 '수집 발췌한 단어들'을 생략과 본래의 맥락과 의미를 벗어나는 불가사의한 조합으로 모호한 색면에 '흔적'처럼 제시하는 <키스 미 데들리>로 우리를 찾아온 사이먼 물리가 밝혀두었다. "나의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불명료함을 통해서 묻혀 있거나, 억압된 깊은 곳으로부터 떠올라 점차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싶었다. 내가 주목한 것은 시각적으로 미흡하게 구조화된 것으로, 이는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마치 황혼이 진 곳에서의 경험과도 같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참여 작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붙여둔 <당신의 친구> 전시 기획자 최태운이 이 기획 과정에서 동료 작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처럼 초대할까 한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시나요? 모두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끼리는 서로 아직 모르실 수 있겠네요. 어쩌면 그러니까 참여할 이유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원래 유럽에 기원을 둔 구성물인 '아시아'는 결코 경제적, 정치적 혹은 문화적 통일체가 아니라고 "질문들을 통해 아시아를 다수의 렌즈와 관점으로 이해하는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는 한국·중국·일본 대만 출신 큐레이터 네 명이 일시적으로 모인 <불협화음의 하모니>전과 같이, 카일 맥도널드의 드로잉 작업처럼 '우리는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예술을 통해 친밀함과 우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얼까. 최태운은 생각한다. "저는 무언의 약속과 우정에 기반을 둔, 진정한 의미의 개방된 친구들의 네트워크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낙관합니다"라고. 참여하고자 결정했다면, 언제든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좋다.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전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기다리는 중이다.